

# 목포시범분업서 건진 ‘분업’의 씨앗

이해집단 틈새의 묘수 도출한 공직자 기억해야

1989년 10월1일 시행되어 1999년 막을 내린 약국의료보험의 경우 사료(史料) 창고로 들여보내기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현재의 의약분업이 약국의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이며 약국의보를 통해 분업진입의 기초를 닦아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국의보를 출범시킨 배후에는 그 무렵 담당 부회장으로 활약한 권경곤 전 대약 회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명섭 대약 명예회장(당시 대약회장)을 도와 이 제도 출범의 산고를 겪은 그로부터 약사공론 지령 4000호를 기념한 회고를 들어본다.

## 1998년 세계 유일의 제도 끌어낸 권경곤 전 대약 회장



권경곤 전 대약 회장은 의약분업제도 시행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말로 약국의보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의 서두를 꺼냈다.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약국의 역할(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가운데 전국 약국과업이란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공교 및 직장보험은 약국의 참여없이 진행되었고 지역의료보험 시행에 앞서 지역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약국의 의료보험 참여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죠. 목포시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임의분업으로 는 의사의 처방전 발행이 저조하고 약국의 수용태세를 갖추기가 어려워 사실상 약국이 의료보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권 전 회장은 완전의약분업만이 유일한 (약국의 의보참여) 방법임을 확신한 당국과 관계 공직자들의 의지에 따라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고 이에 따른 약국, 병·의원, 그리고 보험조합간의 합의를 얻어내는 과정이나 급여방법을 정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술회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투약만을 의약품 보험급여로 인정한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예상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의사를 반대로 제도로 연결하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계약 방식에 의한 의약분업이란 절묘한 아이디어로 시범사업을 장안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보건사회부 K국장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권 전 회장은 아직은 당시 공직자들의 실명을 거론할 시기는 아니라고 덧붙인다. 그가 장황하게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꺼내는 이유는 약국의보의 역사적 배경이 목포분업 시범사업과 맥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회장은 의료보험 적용인구가 점차 확대되고 수진율이 점증하면서 약국의 시장은 위축되어 가는 마당에 마침내 전 국민이 의료보험적용을 받게 되는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된 상황이라 약국이 의료보험에 참여하지 못하면 약사직능은 유명무실하고 약학교육이 불필요하게 되는 운명에 처했었다.

그리고 의약분업으로 약국이 의료보험에 참여하여 보험급여의 한축을 맡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한 것임에도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여 보험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였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비집고 궁여지책으로 등장한 것이 약국의료보험이란 제도라는 설명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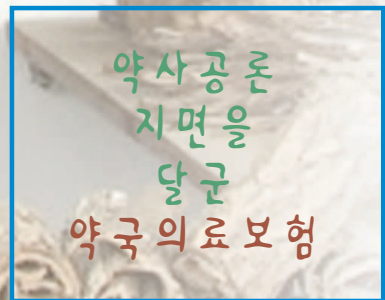
“현행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약국조제를 보험급여로 인정한 것이예요. 그러나 보험자 측에서 보면 약국조제급여를 무제한 허용할 수 없었죠. 관행에 따른 조제(사실상 무제한)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관리해야 하는 임원으로써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권 전 회장은 그나마 약국의 조제가 약국의료보험급여로 인정받아 보험제도에 참여하게 되어 명맥이 유지되었다는 명분으로 다음 단계 의약분업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의 제도가 특히 직능단체(이의단체)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단체와의 이해조정이 불가피하고 또 항상 국민의 여론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의료보험도 이런 역학관계로 태어난 기형아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견해일 것이예요. 이 제도 또

한 우리가 만들고 추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해서는 안 되고 제도 당국이 창안하고 제도화한 것으로 공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권 전 회장은 당시 M장관이 한 말을 떠올렸다. 그 장관은 “약국의료보험제도는 나의 작품이야. 약사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은 이것 또한 K국장의 아이디어라 할 것이라며 제도출범의 배후에는 이렇게 ‘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만드는 주역’들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동환기자



www.kpanews.co.kr

KPANEWS·약사공론 지령4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 장 이재국

외 동문일동